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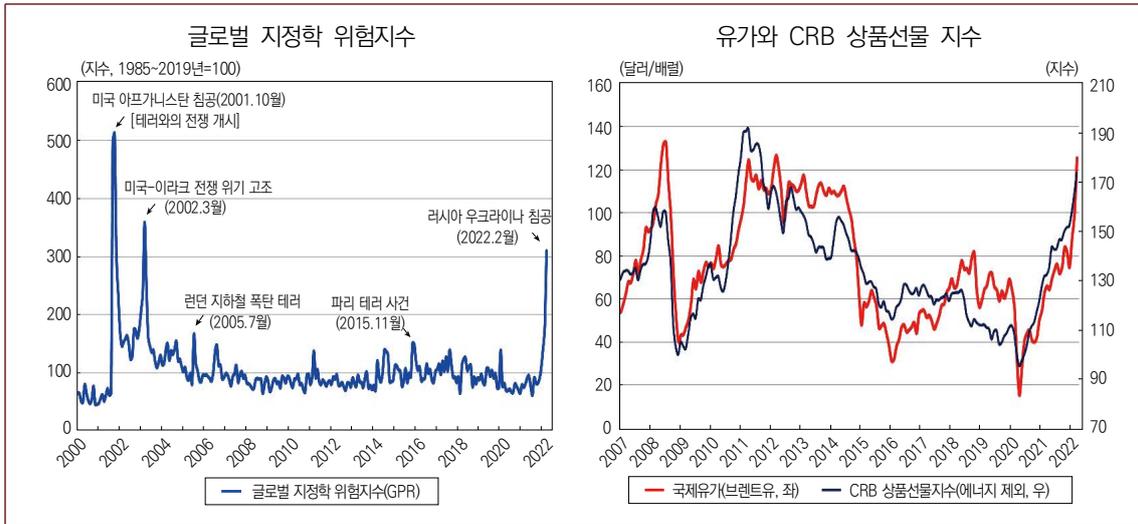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및 원자재가격 급등과 더불어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에 대한 우려가 점증
-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내 경제 영향은 분쟁 당사국들과의 무역 감소를 통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주로 에너지 및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생산비용은 기본 시나리오(사태 단기 해소, 연평균 유가 33% 상승)를 전제하였을 때 2.4%, 비관 시나리오(사태 장기화, 유가 100% 상승)를 전제하였을 때 6.7% 각각 상승할 것으로 추정
 - 주력 업종 가운데 석유제품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다음으로 화학제품, 섬유, 자동차, 가전제품, 일반기계 등의 순
- 제조업 실질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 시나리오하에서 1.2%포인트, 비관 시나리오를 전제할 경우에는 약 3.5%포인트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에너지 및 원·부자재 공급망 교란과 관련한 대응과 더불어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해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물가관리와 경기 대응 양면에서 대비가 필요
-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간접적 영향은 업종별·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업종별·기업별 상황에 맞춘 미시적이고 선별적인 정책적 접근이 무엇보다도 중요

■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파급에 대한 우려 심화

- 올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국내외 경기 향방의 불확실성과 향후 실물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점증
 - 지난 2021년 말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에서 병력 투입을 증가하고, 벨라루스와의 군사작전을 개시하는 등 위기감이 높아졌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 충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상황
 -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돈바스)에 대한 편입 선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감행(2월 24일)하면서 시작된 이번의 충돌 사태는 국내외 실물경기와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특히 이번 사태의 종결 시점을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가 반복되고 있는 양상으로 향후 사태의 전개 방향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무력 충돌이 국내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 경로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및 (주로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충격과 러시아의 경제적 피해에 따른 영향 등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음.
- 먼저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아울러 주요 원자재 수출국인 러시아발(發) 공급 충격으로 유가와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실물경제에 영향이 불가피
 - 글로벌 지정학 위험지수(GPR)¹⁾가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2002년 이후 최고치까지 추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를 시사
 - 원유와 천연가스, 금속품, 곡물 등 1차상품을 주로 수출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충돌로 인해 서방 국가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생산 및 수출 차질 우려가 높아지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비에너지 상품 등 원자재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
 - 코로나19 상황의 완화에도 글로벌 공급병목과 고용난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무력 충돌로 인해 그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하여 인플레이 압력이

1) 글로벌 지정학 위험지수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10개 신문지상으로 군사적 긴장과 전쟁, 테러 위협이나 사건 등과 관련된 단어들인 언급된 빈도를 통해서 측정(Caldara-Iacoviello, 2019).

〈그림 1〉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유가·비에너지 상품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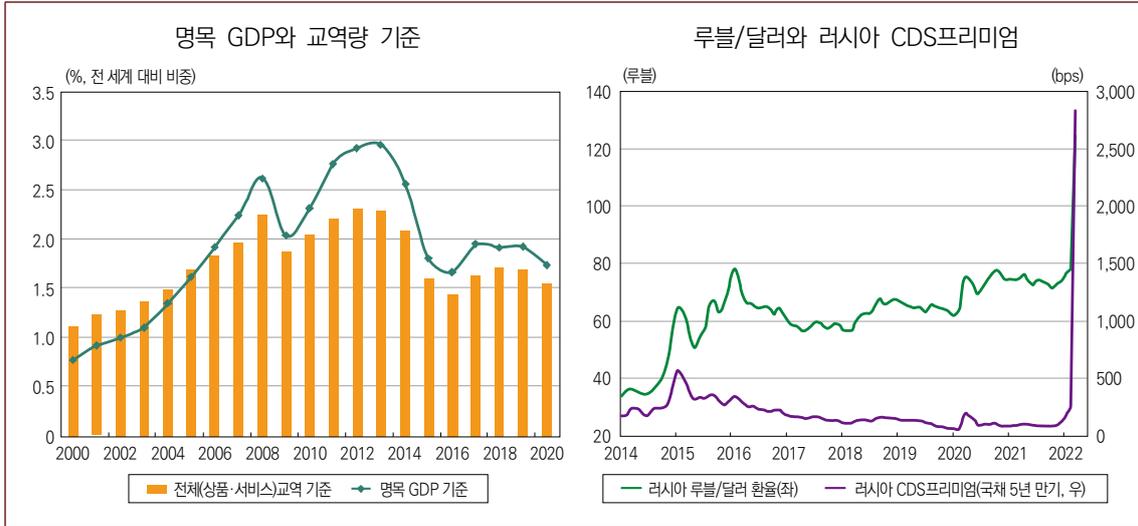


자료: Caldara-Iacoviello; Refinitiv Eikon Datastream.

고조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주체들의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실물경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이번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가 받고 있거나, 추가적으로 받게 될 타격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실물 경로와 금융 경로 측면에서 각각 교역 지표와 투자 지표 등을 통해 나타날 가능성
 - 서방 국가들의 각종 제재 등의 여파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2분기에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2년 마이너스 성장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경제가 세계 경제와 교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현재 각각 1% 수준에 불과하여 글로벌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력은 미미
 - 다만,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경제를 중심으로 생산이나 교역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
 - 금융 측면에서는 러시아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역외에서 루블화 가치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채와 관련된 CDS 스프레드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투자신뢰도 추락을 반영
 - 러시아 루블화의 약세는 곧 수입가격의 상승세로 이어져 러시아 내 인플레이션 심화로 이어질 것이며, 글로벌 기업들의 러시아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국가신뢰도의 저하는 러시아로의 투자 유입을 저해할 것으로 전망

〈그림 2〉 러시아의 경제적 비중과 금융지표(환율·CD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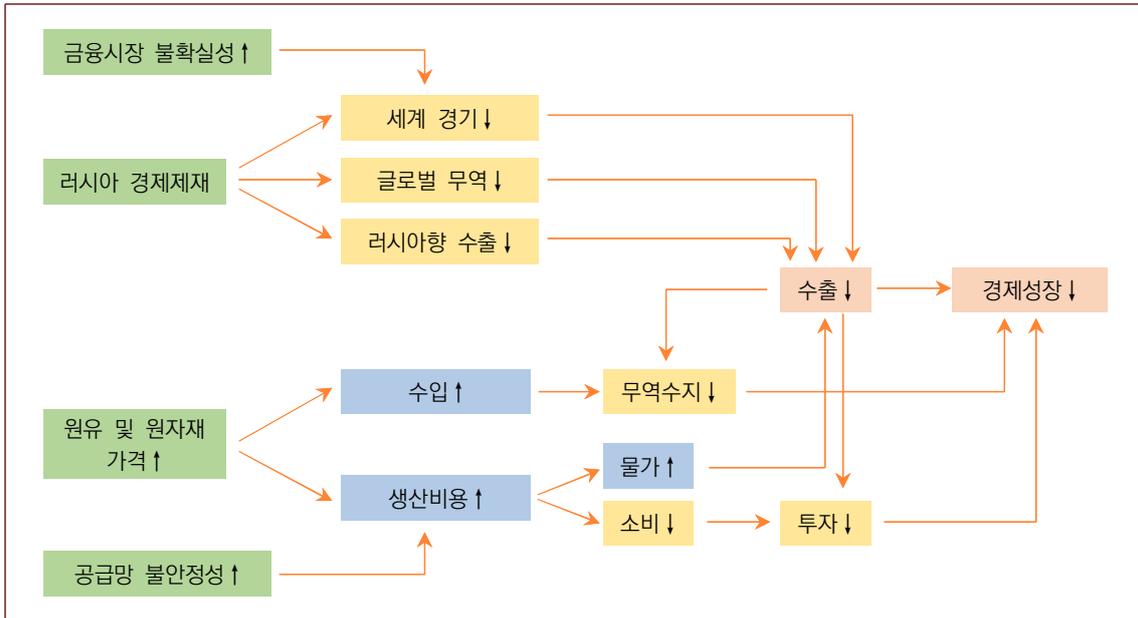
자료: UNStats AMA, Refinitiv Eikon Datastream.

■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①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向) 수출 감소에 따른 영향, ②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주요 원자재 공급 차질로 인한 영향, ③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 등
- 먼저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교역 규모²⁾를 고려할 때 이들 국가과의 교역을 통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에너지 및 원자재가 상승을 통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영향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국내 주요 제조업 생산비용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기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및 원자재 상승 충격은 국내 기업에 제조 원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내수를 감소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를 유발
- 본고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주요 변수들의 변화를 시나리오에 따라 설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수출의 변화와 제조 원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영향 등을 추산하는 축차적인 접근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

2) 우리나라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교역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고.

〈그림 3〉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내경제 영향 파급 경로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①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

- △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양상, △ 러시아 에너지 제재 여부, △ 원유 수급 불안정 해소 정도 등을 감안하여 기본 시나리오와 비관 시나리오를 설정
 - (기본 시나리오)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어 러시아를 향한 에너지 제재가 현 수준(미국의 강력 제재 및 유럽의 소극적 제재 참여)에 그치는 경우를 상정
 - 유가와 천연가스가격이 2022년 연평균 전년 대비 33%, 비철금속가격은 30% 상승
 - (비관 시나리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를 향한 에너지 제재에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유 공급 차질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고유가가 지속되는 경우를 상정
 - 유가와 천연가스가격이 2022년 연평균 전년 대비 100%, 비철금속은 50% 상승
 - 각 시나리오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을 원유공급 충격으로 간주하였으며, OECD(2022)³⁾의 추정결과를 활용하여 세계 GDP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
 - 기본 시나리오하에서 세계 실질GDP가 0.65%포인트 하락하고, 비관 시나리오의 경우 세계 실질GDP가 1.95%포인트 하락하는 것을 상정

3) OECD(2022),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March).

② 주요 제조업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 일반적으로 에너지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각 산업별 개별기업의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별 제조단계에서의 사용 비중에 의하여 결정됨.
 - 각 산업별 개별기업의 에너지 및 원·부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충격이 주요 제조업의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
- 주요 제조업의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산업연관표의 생산자가격기준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분석
- 각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생산비용 변화는 기본 시나리오를 전제하였을 때 2.38%, 비관 시나리오를 전제하였을 때 6.66%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주요 제조업의 생산비용 증가 영향을 살펴보면, 주력 업종 가운데 석유제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화학제품, 섬유, 자동차, 가전제품, 일반기계 등의 순
 - 석유제품의 경우 2022년 국제유가 평균이 배럴당 140달러 내외를 기록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생산비용 증가폭이 56%를 상회
- 반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업종인 반도체 업종은 생산비용 증가폭이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0.27% 수준이고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도 0.74% 정도로 나타나면서 주요 제조업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시나리오별 주요 제조업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기본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
제조업 전체	2.38	6.66
가전	0.71	2.05
무선통신기기	0.34	0.99
반도체	0.27	0.74
석유제품	18.54	56.16
화학제품	3.06	9.18
섬유제품	0.98	2.95
일반기계	0.87	2.45
자동차	0.89	2.53
철강	1.95	4.99
디스플레이	0.70	1.96

자료: 저자 작성.

- 구리와 니켈 등 비철금속의 가격 상승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분보다 상대적으로 미미하나, 이차전지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니켈, 산업용 금속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공급불안정으로 인한 생산차질에 따른 피해 영향이 더 클 수 있음에 유념

③ 주요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기 위하여 자기회귀시차분포(ARDL) 모형⁴⁾을 이용하여 세계 GDP와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동태적 효과를 추정
 - 본 실증분석 모형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단위 국제유가 변화에 따른 동태적 승수(dynamic multiplier)를 추산하였고, 동 계수를 통해 앞서 설정한 시나리오별 국제유가 변화에 따른 국내 제조업(전체) 및 주요 업종별 수출의 영향 정도를 산출
- 분석 결과, 세계 경기가 0.65%포인트 둔화되는 기본 시나리오하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실질 수출은 1.1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관 시나리오를 전제할 경우에는 제조업 실질 수출은 약 3.55%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국제유가가 국내 제조업 실질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0.5보다 작게 나타나면서, 국제유가 변동에 우리 수출은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시나리오별 제조업 실질수출에 미치는 영향

단위: %포인트

	기본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
실질수출	-1.183	-3.549

자료: 저자 작성.

- 업종별 총산출 대비 수출 비중을 가중치로 이용하여 제조업 수출 감소 시 영향이 큰 업종들을 살펴보면, 반도체 업종이 주력 업종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화학제품, 일반기계, 가전, 자동차 등의 순

4) 실증분석은 자기회귀시차분포 모형을 기본으로 한 $Y_t = \alpha_0 + \sum_{p=1}^P \alpha_p Y_{t-p} + \sum_{q=1}^Q \beta_q X_{t-q} + \epsilon_t$ 의 추정식을 이용하였고, 여기서 Y 는 제조업의 대세계 실질수출금액의 전년동기비 증가율이며, X 는 대외 환경변수로 고려한 세계 실질GDP, 세계무역량 지수, 원/달러 환율, 국제유가 등의 벡터를 의미함. 분석기간은 2001년부터 2021년 4/4분기까지이며 회귀시차는 분기별 자료가 분석주기임을 고려하여 시차를 4로 설정.

〈표 3〉 주요 업종별 총산출 및 부가가치 대비 수출 비중 가중치

	총산출 대비 수출 비중 가중치 (2019년 기준)	부가가치 대비 수출 비중 가중치 (2019년 기준)	수출 비중 가중치 (2021년 기준)
제조업	0.346	1.182	1.000
가전	0.450	1.622	0.014
무선통신기기	0.165	0.649	0.052
반도체	1.056	1.936	0.196
석유제품	0.360	1.435	0.062
화학제품	0.453	1.978	0.087
섬유제품	0.222	1.060	0.020
일반기계	0.450	1.457	0.084
자동차	0.402	1.871	0.108
철강	0.308	1.531	0.056
디스플레이	0.591	1.624	0.033

자료: 저자 작성.

- 부가가치 대비 수출 비중을 가중치로 살펴보았을 때는 화학제품이 주력 업종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 철강 등의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업종별 수출 비중 가중치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주력 업종 가운데 반도체 업종이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으로 자동차, 화학제품, 일반기계, 석유제품, 철강 등의 순

■ 시사점

- 우리나라는 대러시아 교역 비중이 주요 교역상대국 대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기본 시나리오를 전제하였을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비관 시나리오를 전제할 경우 국제유가 상승세 장기화와 더불어 공급망 차질 및 글로벌 경기회복세 제한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
- 특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본고에서 분석한 생산비용 및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외에도 물가 상승 및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소득 감소 및 내수 침체가 국내 경기 둔화의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사태의 장기화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압력을 가중하는 동시에 세계 경기 회복을 저해하고 전 세계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유의할 필요

- 이에 물가 불안 해소·경기안정화·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시경제정책 운용이 요구됨.
 - 코스트 푸시형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은 국내 물가 불안과 경기 위축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거시적 대응책이 쉽지 않아 보다 신중한 접근과 대응이 필요
- 에너지와 원·부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 감소를 위해 장기 공급계약 확대, 상품선물시장 등을 통한 위험 분산 대응 및 기업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 에너지 및 원·부자재 공급망 교란과 관련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에너지, 희귀가스 등 핵심 원·부자재에 대하여 수출·수입선 다변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 러시아와의 직접 공급망 이외에 중국 등 제3국 공급망을 통한 국내 파급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시점
- 에너지 및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이슈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공급망 다변화 방안 마련과 핵심 산업 및 부품 기술 자급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나 경쟁력 확보가 필요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은 업종별·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업종별·기업별 상황에 맞춘 미시적이고 선별적인 정책적 접근이 무엇보다도 중요
- 현재 원자재 가격 동향 파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자재 관련 정보시스템을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전망 등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양적·질적 측면에서 보완 및 확충하는 방안 고려
-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 가격 변동성, 공급 확대 여력 등을 고려한 정부의 비축 품목 확대 및 비축량 증대와 비축자금 확대 필요
- 국제유가 및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용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 공급 지연, 과도한 가격 전가 등 시장질서의 문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장 질서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
- 국제유가 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생산비용 상승 압력을 판매가격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기업, 특히 하청 중소기업들에 대한 하청대금 조기 지불 등을 독려할 필요

-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의 변화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해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홍성욱 동향분석실 | 연구위원 | swhong@kiet.re.kr | 044-287-3192

민성환 동향분석실 | 선임연구위원 | shmin@kiet.re.kr | 044-287-3127

강두용 동향분석실 | 선임연구위원 | dykang@kiet.re.kr | 044-287-3205

이소라 동향분석실 | 부연구위원 | sora.lee@kiet.re.kr | 044-287-3711

김바우 동향·통계분석본부 | 전문연구원 | instrumist@kiet.re.kr | 044-287-3921

강성우 동향분석실 | 연구원 | swkang@kiet.re.kr | 044-287-3677

〈 부 록 〉

1.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교역 실태

- 우크라이나와의 교역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희귀가스 수입 동향에 주목
 - 우크라이나는 2021년 한국 수출의 0.1%, 수입의 0.05%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수출품목은 강판, 자동차, 화장품, 주요 수입품목은 사료 등 농산품이며 제논, 크립톤 등 희귀가스 수입이 상위권에 위치한 것이 특징
 - 대우크라이나 수출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무역을 통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농산품의 경우 가격 상승 가능성은 크나 일시적 수급 중단 등 공급망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희귀가스는 과거 전구 등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반도체 공정의 발달로 식각 공정 등에 활용되면서 수요가 증가하여 사태 악화 시 수급 문제가 우려
 - 크립톤은 총수입에서 우크라이나 비중이 30.7%, 러시아 비중이 17.5%, 제논도 우크라이나 비중이 17.8%, 러시아 비중이 31.3%에 달하며, 두 품목 공히 3년 연속 수입단가가 급증하는 등 초과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
 - 우크라이나에는 세계 주요 희귀가스 공급기업인 린데(Linde)사, 레르리퀴드(Air Liquide)사 공장이 위치, 한국 외에도 주요 희귀가스 수요국(중국, 독일, 일본)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소수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희귀가스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이 밖에 우크라이나가 2020년 세계 수입시장에서 유의미한(3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품목이 4개⁵⁾ 관측되었으나 한국 산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전망
- 대러시아 교역에서는 에너지광물 수출 감소에 기인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가격 상승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러시아는 2021년 한국 수출의 1.5%, 수입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수입품은 원유 및 관련 제품과 백금으로 분석
 - 다만 대러시아 수출 감소의 영향보다는 세계 원유 수출의 12%, 천연가스 수출의 7%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수출 감소가 국제유가 상승을 통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5) 식물성 유지(HS 151211), 박(HS 230630), 내화점토(HS 250830), 선철(HS 720150).

〈부표 1〉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대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2021년)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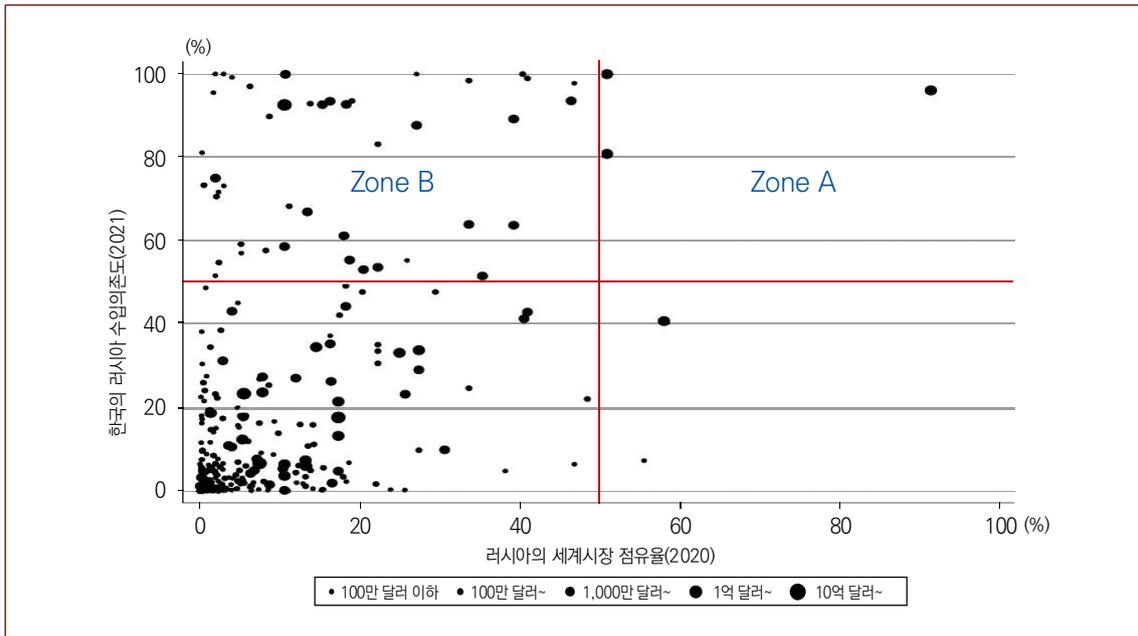
	수입		수출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농산물	454 (1.5)	199 (0.7)	192 (2.5)	13 (0.2)
수산물	1,220 (20.5)	3 (0.1)	32 (1.4)	1 (0.0)
축산물	39 (0.5)	1 (0.0)	15 (3.7)	0 (0.0)
비철금속	364 (1.7)	2 (0.0)	15 (0.1)	0 (0.0)
철강	708 (2.8)	7 (0.0)	903 (2.4)	71 (0.2)
석유화학	48 (0.3)	0 (0.0)	574 (1.0)	47 (0.1)
정밀화학	141 (0.3)	42 (0.1)	726 (1.6)	93 (0.2)
반도체	5 (0.0)	1 (0.0)	137 (0.3)	3 (0.0)
전기전자	28 (0.0)	21 (0.0)	711 (0.3)	24 (0.0)
섬유	3 (0.0)	8 (0.0)	138 (1.1)	13 (0.1)
생활용품	154 (0.6)	2 (0.0)	411 (2.5)	36 (0.2)
자동차	1 (0.0)	0 (0.0)	4,048 (6.0)	174 (0.3)
조선	26 (0.9)	0 (0.0)	163 (0.7)	0 (0.0)
일반기계	27 (0.1)	1 (0.0)	1,238 (3.0)	46 (0.1)
기타제조업	14,138 (6.9)	21 (0.0)	676 (0.9)	61 (0.1)
전 산업	17,357 (2.8)	309 (0.1)	9,979 (1.5)	581 (0.1)

자료: 관세청.

- 일부 농·수·축산물의 경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며 그 밖에도 고무 등 일부 소재부품의 러시아 의존도를 점검할 필요
 - 다음의 산포도는 한국의 품목별 대러시아 수입의존도와 러시아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며, “Zone A”에 속한 원은 러시아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의존도가 과반인 품목을 의미하며 모두 수산물로 확인

- “Zone B”는 러시아가 세계시장에서 과반을 점유하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 시장에서 과반을 점유하는 품목이 위치하는 영역으로, 총 59개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데 농·수·축산물이 37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나 고무(HS 400231) 등 일부 소재부품도 이에 해당
- 전체 수입품목 대비 고의존 품목 수가 비교적 적으므로 관련 기업들의 공급망 안정성 점검이 필요

〈부도 1〉 한국의 품목별 러시아 수입의존도와 러시아의 세계시장 점유율



자료: UN, 관세청 등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각 원은 HSK 10단위 품목을 의미, 2021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액 1만 달러 미만 품목은 미표시.

〈부표 2〉 한국의 산업별 대러시아 수입 및 고의존 품목 수(2021년)

단위: 백만 달러,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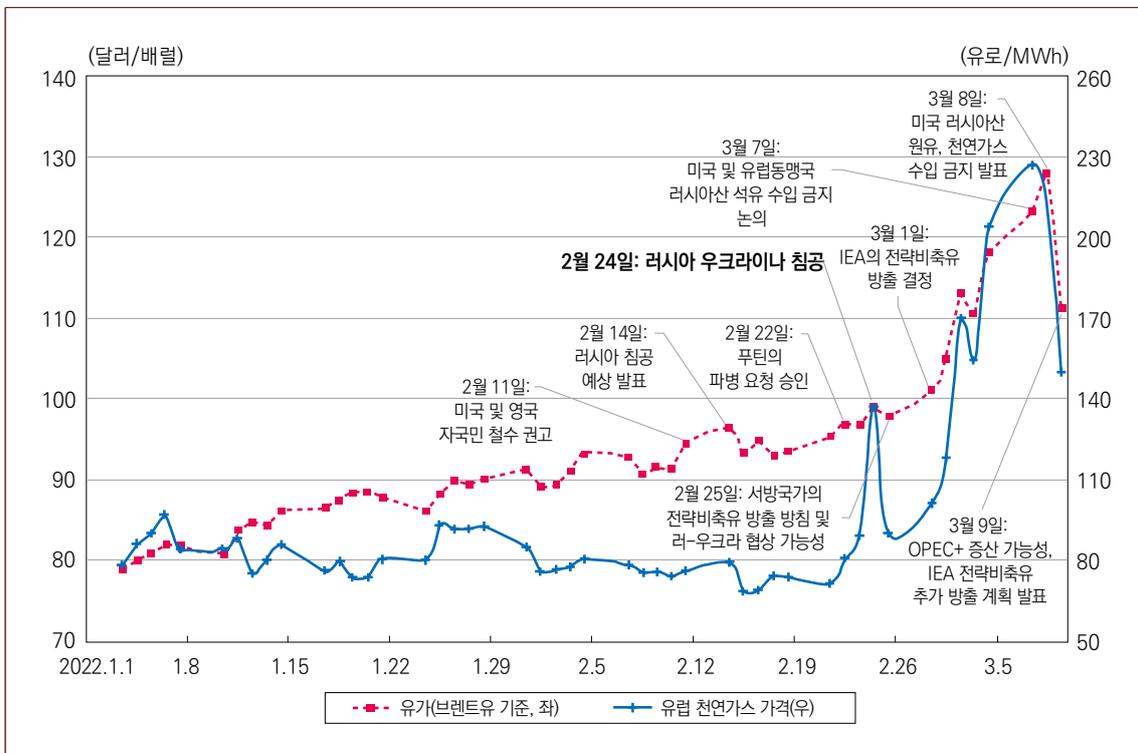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비금속 비철	철강	화학	전기 전자	기계류	생활 용품	기타 제조업	전 산업
대러시아 수입액	454	1,220	39	367	708	189	34	55	157	14,134	17,355
러시아 의존도	1.5	20.5	0.5	1.4	2.8	0.3	0.0	0.1	0.4	7.0	2.8
Zone B 품목 수	10	26	1	5	6	2	0	1	4	4	59
전체 품목 수	246	81	13	101	83	377	341	187	448	195	2,072

자료: 관세청.

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동향

- 국제유가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월 24일) 이후 100달러(브렌트유 기준), 천연가스 가격도 200유로를 돌파
-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 금지 발표 이후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각각 130달러와 230유로 수준까지 상승
- 이후, OPEC+의 증산 가능성 확대와 IEA의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계획 발표 이후 국제유가는 110달러 선까지, 천연가스는 170유로 수준까지 반락
-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 배경에는 전 세계에서 러시아의 생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때문
 - 원유의 경우 러시아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3위 산유국으로, 러시아의 생산량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약 11% 차지
 -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의 생산량은 세계 2위 수준으로 2020년 기준 약 17%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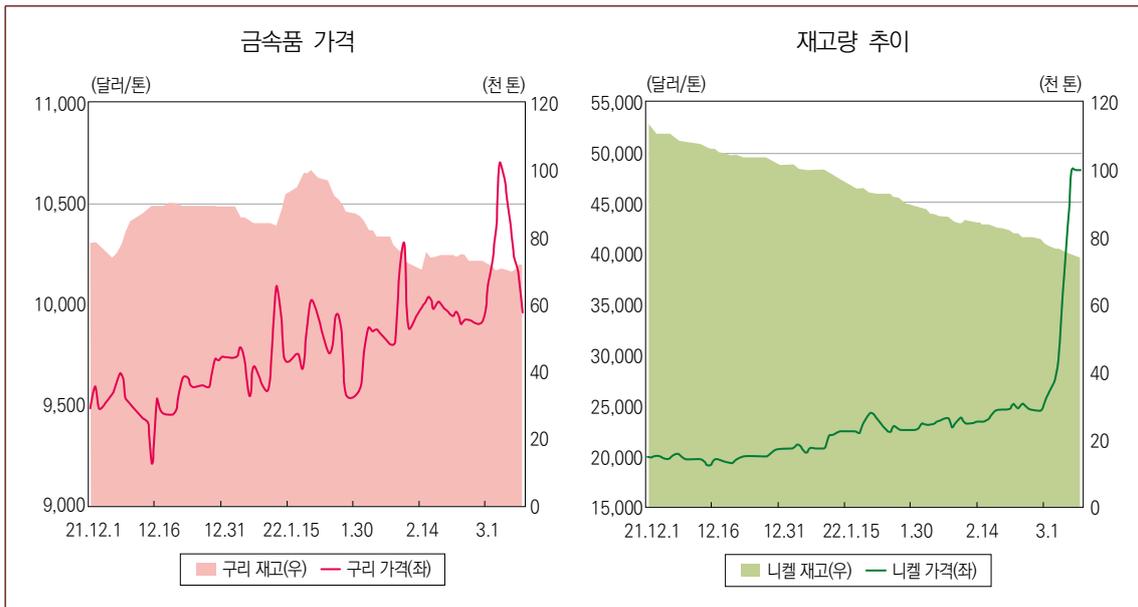
〈부도 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타임라인별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추이



자료: Petronet(한국석유공사), Refinitiv Eikon Datastream.

- 주요 금속품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에도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 3월 들어 사태 장기화 및 수급 차질 우려로 급등세
- 주요 금속품 중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가장 우려가 심한 품목은 구리와 니켈
 - 구리의 경우 러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3%를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나,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산업용 금속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리의 특성상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
 - 재고량: 2021년 중 16.1% 감소, 2022년 들어 18.9% 추가 감소
 - 최근 자동차 배터리 양극제로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니켈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생산 비중이 전 세계 약 10%를 차지하면서 수급 차질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거래 중단 사태도 발생(3월 8일)하는 등 가격이 급등한 모습
 - 재고량: 2021년 중 59.2% 감소, 2022년 들어 26.7% 추가 감소

〈부도 3〉 주요 금속품 가격과 재고량 추이



자료: Refinitiv Eikon Datastream.

